



마 중 물

Priming Water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방시영)는 포장재료, 포장용기, 포장기계 및 각종 포장기술 등 포장산업전반의 수출지향 중소기업의 모임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의 과다한 경쟁을 피하고 해외시장개척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포장수출입협회는 포장관련제품의 해외수출 촉진 및 진흥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공동수출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글로벌화에 주력하고 회원사 위주의 수출 진흥과 해외시장 발굴을 통하여 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고 포장산업수출 진흥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1년 초여름, 분주하게 포장수출입협회의 창립을 의논하던 일이 벌써 2년 전의 일이니 세월이 빠르기는 빠르다.

모두의 이야기는 한가지였다. 수출만이 살 길이고 불황타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일 모두 접어두고 중소기업의 수출촉진만 하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원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이익을 내러놓고 공동으로 수출에 힘쓰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먼저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업체들을 주 회원사로 회원사의 자격범위를 확정하고 대략의 의견을 조율한 후 협회 창립을 서두르기로 하고 준비위원을 선정하여 창립하되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후 내정된 준비위원 전원은 소위 열성분자들을 중심으로 일일이 방문하여 협회 설립의 취지와 향후 사업과 비전을 설명하여 준비위원으로서의 다짐과 약속을 다시 확인한 후, 그 해 12월 8일 삼성동 오코호텔에서 한국포장수출입협회 발족 및 창립총회를 거행하였다.



김 영 순

한국포장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포장기술사

초대 회장에는 중견 포장수출입업체인 (주)HPM 글로벌의 방시영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감사를 비롯하여 부회장 및 이사를 선임하는 등 협회 조직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협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정관과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협회 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주)HPM 글로벌(대표 방시영)의 본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미켈란 107-804호'에 정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협회란, 하나의 단체로 첫째가 회원 간의 화목과 단합이며 둘째가 회원사를 위한 협회의 역할이다.

즉, 우리는 수출축진을 위하여 서로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하여 모인 중소기업체들 이기에 함께 힘을 합쳐 수출의 실적을 올리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H"사의 사업 활성화로 이를 토대로 다소의 공동수출전선을 유지하면서 협회 회원사간의 끈끈한 유대를 갖는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은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협회 자체로서도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키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www.koptanet.or.kr)를 한글과 영문으로 구축하여 홍보 중이며 공동 수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추진사업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회원사 단합을 위하여 월례회를 회원사 공장을 순회하면서 시행하여 서로의 이해를 돕

는데 크게 기여하고 포장 및 식품관련 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사의 견문을 넓히고 있다.

또한 회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12월 첫째 목요일을 "포장수출인의 날"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와 포장 수출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포장수출대상"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수출축진을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을 비롯하여 미주지역과 중동지역 등 전 세계 시장의 수출입 정보입수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먼저 이웃 나라인 거대한 시장인 중국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먼저 중국의 식품과 포장산업관련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식품과 포장기계협회"(CFPM A) 회장단을 초청하여 KOREA PACK 2013 전시회 기간 중인 2012년 5월에 제1회 "한중 포장수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내년 2014년도에는 중국은 물론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브라질, 칠레 등 다국적인 "국제 포장수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포장관련 전시회에 직접 제품을 들고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 판매축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1차로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China



Foodtech 2013 전시회에 중기청 자금지원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포장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오는 2014년도에는 보다 더 폭을 넓혀 브라질, 콜롬비아, 프랑스, 칠레, 러시아, 인도,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유명 포장관련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직접 우리나라 포장제품을 바이어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팔목할만한 사항은 지난 8월 필리핀 정부의 초청으로 친환경생분해성포장재 수출설명회에 초대되어 “필리핀고형폐기물 처리위원회”(NSWMC)의 전문위원들에게 협회 회원사인 “H”사, “S”사, “D”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필리핀으로의 친환경 포장재료의 수출사업을 제안하여 친환경의 생분해성 포장재의 수출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리핀 현지와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의 생분해성 포장재료의 원료 또는 그 제품의 수출이 성사되면 부수적으로 각종 포장재 가공기계와 포장기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도 협회의 활동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회원가입의 문의가 계속되어 60여개 회원을 확보한 중견 협회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100개 회원을 아우르는 단체로 성

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회 개개의 발전에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40여 포장산업 관련 협회(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포장산업 총연합회”가 하루 속히 창립되어 개별 단체를 지원하여 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포장진흥법”도 곧 제정되어 우리나라 포장 산업이 정부의 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중의 하나인 인력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포장관련 고급인력과 포장기술공 그리고 포장기능공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또는 전문양성기관에서 많은 포장관련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잠시 짧은 2년 전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모든 회원사의 결집된 응집력의 결과로 공동수출의 길이 크게 확대되어 우리 모든 회원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단합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사가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우리 협회는 이를 위해 헌신적이고 충실한 “포장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